



# 식량과 비료

2022년  
5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 비료 관련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6. 무기질 비료 우수성 홍보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1 회원사 동정

### □ 남해화학(주)

-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공장 착공」으로 반도체 소재사업 진출 본격화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계열사인 남해화학이 ENF테크놀로지, 삼성물산과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NES머티리얼즈가 지난 28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공장」 착공식을 열고 반도체 소재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남해화학 하형수 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 김옥주 영농자재본부장, NES머티리얼즈 임태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안전한 공장 설립을 기원했다.

연간 생산량 5만 4천톤이 가능한 고순도 황산공장 건설은 총 사업비 700억원이 투자되고, 2023년 말 완공되어 2024년 상반기 내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고순도 황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남해화학은 NES머티리얼즈의 성공적인 반도체 소재사업 진출을 전망하고 있다.

남해화학 하형수 대표이사는 “이번 고순도 황산공장 착공으로 본격적인 반도체용 소재사업 진출뿐만 아니라 여수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해화학의 축적된 기술력과 NES머티리얼즈의 첨단설비를 통한 시너지로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사업을 확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2022. 5. 2.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 (주)팜한농

- ‘한번에측조’ 판매량 쑥쑥~
- 모내기 때 1회 처리로 충분, 판매량 전년비 81% 증가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팜한농의 완효성 비료 ‘한번에측조’가 농가의 높은 만족도 속에 판매량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팜한농은 올해 5월 18일까지 47만포의 한번에측조 비료를 판매해 지난해 동기 판매량 26만포 대비 81%의 가파른 성장세에 있다고 밝혔다. 47만포는 지난 한 해 전체 판매량인 39만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팜한농에 따르면 한번에측조는 모내기할 때 1회 처리하면 수확 때까지 더 이상 논에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100% 코팅 완효성 비료다. 질소와 인산, 칼리를 모두 코팅하고 양분이 용출되는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해 벼 생육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준다. 질소만 코팅한 일반 완효성 비료는 660㎡(200평)당 40kg(2포)를 사용해야 하지만, 한번에측조는 절반에 불과한 20kg(1포)만 사용해도 돼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한번에측조를 사용하면 벼 알곡이 여물 때까지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해 쫄정이 발생이 적고, 이삭 및 알곡을 충실히 맺게 하며, 미질이 향상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0% 코팅 비료인 만큼 가루가 발생하지 않아 측조시비가 막힐 우려도 없다. 양분 유실이 없어 이끼 발생도 적고, 웃자람으로 인한 도복 피해도 예방해 준다.

팜한농은 생육 기간이 짧은 조생종과 이모작 재배에 적합한 비료로 ‘한번에측조 스피드’도 소개했다. 벼 등숙기에 비료 성분이 용출되면 벼가 잘 익지 않는데, 한번에측조 스피드는 조생종 및 이모작 벼 등숙기 이전에 비료 성분 용출이 모두 끝나 벼가 덜 익었을 때 발생하는 청미(푸른빛을 띠는 쌀)도 거의 없다.

팜한농 관계자는 “한번에측조 시비 후에는 분얼을 완료하는 이앙 후 40일경까지 계속 논물을 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출수 10일 전부터 이삭이 여물 때까지 논물을 대면 벼에 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돼 고품질 쌀을 수확할 수 있다”고 전했다.

※ 2022. 5. 20.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주)풍농

### ○ 정밀농업 + 노동력절감 + 고품질농산물 생산! 국내최초항공살포용엔피코 드론비료

(주)풍농에서 신제품 항공살포용 드론비료가 출시되었습니다. 고령화, 여성농업인, 위탁전업농 등 농업 환경변화와 성숙기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현장, 영농작업 편의성 뿐만아니라 농기계사고에 의한 인적, 물적피해 예방 등 안전관리, 경제성향상으로 농업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엔피코 드론전용비료는 2021년 경기 화성, 경북 칠곡, 강원 삼척 등 전국단위 농업용 드론시연을 통해 농업인 및 시·군 관련기관, 드론운용업체 등으로부터 신제품 드론전용비료 기술력 및 우수성을 선보여 현장평가에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신제품 드론전용비료는 이양전, 후 밀거름용 '완효성 하이롱357드론'과 생육중기이후 이삭거름용 '속효성 드론NK'입니다.

### #하이롱357드론

드론전용 '하이롱357드론(30-5-7+1+0.1+아연0.15함유)' 비료는 고농도 완효성 비료로 밀거름 한번으로 가지거름, 이삭거름 등 웃거름 생략이 가능합니다. 15kg/포로 공급되어 사용시 가볍고 편리합니다. 이 비료는 시비횟수를 줄여 노동력이 절감되는 완효성비료로 작물생육향상과 시비노동력 절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신제품입니다.

### #드론NK

'드론NK(34-0-12,색상요소함유)' 비료는 고농도 질소양분 함유로 벼 이삭거름 및 원예웃거름용으로 넓은면적과 시비가 불편한 밭, 논토양의 재배지에서도 손쉽게 살포 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색상요소 및 막힘없는 시비를 위한 품질안정제 함유로 항공살포시 시비확인성 및 시비효율이 뛰어난 비료입니다. 고농도 속효성질소, 칼리 양분 균형함유로 이삭수확보와 등숙을 향상 등 벼 후기 생육을 좋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수, 원예류의 맛, 당도, 때깔향상에 효과적인 비료입니다.

풍농비료 관계자(개발부)는 "드론전용 '하이롱357드론, 드론NK' 비료는 균일한 입자와 단단한 경도로 제조된 특성화 제품으로 친환경 스마트 정밀농업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풍농 자료 인용

## 2 협회 주요 활동

-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의견 제출(농식품부, 농진청)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및 당면 현안 대처(수시)
- 산자부 비영리법인(협회) 현황 점검 회의 참석(5.12)

##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 국회 예결위 “전례없는 농업홀대 추경” 맹공

- 추경안 심사 ‘농업예산 삭감’ 재검토
- 비료가격 정부지원 확대 등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전례 없는 농업홀대 추경’이란 비판이 계속됐다. 추경삭감으로 인해 농업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인 2.5%까지 축소될 위기에 놓인 데다,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대부분을 농협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예결위원들은 농업예산 삭감 재검토와 함께,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농협의 과중한 부담률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농협 부담률이 30%였는데, 이번 추경에서 60%로 늘었다. 기재부에서 미리 농협과 협의를 본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면서 “농협 부담률이 두 배로 높아지면서 36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농업계에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농업인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농업인들이 홀대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부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2년 예산심의 때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비율을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로 논의됐는데,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정부가 농협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농협에 3600억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으로, 결국 농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걱정하는 바 잘 알고 있다. 농협의 부담률 30%는 당시 농협의 제안사항이긴 했다.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적정분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물가안정 그리고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에 나서는 부분이니까 농협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예결위는 5월 23일부터 소위원회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2022. 5. 20.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한중협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 16일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
- “농업예산 4000억 삭감…비료가격 지원 농협에 떠넘겨”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업분야 추가경정 예산(추경)안 졸속 편성을 규탄했다.

한중협은 “매번 추경안 편성 때마다 정부는 농업분야 재원을 임의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농민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2021년 2차 추경 당시 정부는 상당부분 농어촌특별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22년도 농업예산 가운데 4000억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농민을 위한 지원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타 산업 분야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서 “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학구 한농협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무기질 비료가격 상승분을 대폭 지원해 농가부담을 낮추겠다더니, 이제는 오히려 우리 농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어느 때보다 추경 편성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가 컸는데 이런 새 정부를 어떻게 믿고 5년 동안 국정운영을 맡길 수 있겠냐”고 물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짜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비료가격 인상 국고지원 분담률을 조정해 농협에 부담을 대폭 전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농협은 국회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비료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 ▲농업분야 에너지 바우처 지급 ▲사료가격 인상분 지원을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엔 한농협 소속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가 참여했다.

※ 2022. 5. 16.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윤 정부 첫 추경..농어민 지원은 ‘속 빈 강정’

- 59조4000억 ‘역대 최대’ 불구, 소상공인 손실보전에 집중
- 비료가격 인상 지원예산은 600억 원, 전체 0.1% 불과
- 농협 분담률 30→60%로 올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키로 했지만, 농어민 지원은 ‘속빈강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비중을 줄이고, 농협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담률을 조정해 결과적으로 농업분야에 배정된 정부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농가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을 직접 언급했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의 경우에도 이차보전 지원에 그쳐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원으로, 기존 최대 규모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이 나 많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대부분 사용되며, 비료와 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어민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료와 사료 원료구매·경영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 및 배합사료 구매자금 이차보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업계는 이번 추경안이 줄속으로 편성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의 분담률을 계획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로 분담률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6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0.1%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농협 측은 분담률이 대폭 상향되면서 이전보다 1800억원의 초과 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5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 △사료 가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2022. 5. 13.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무기질비료 공급가격 6월까지 ‘안 올린다’

- 요소·염화칼륨값 등 폭등에도
- 농협경제지주, 1분기 가격 ‘동결’
- 농가들 추가 생산비 부담 덜어
- ‘원자재가 연동제’로 인상 기대
- 비료업체들 일부 손실 불가피
- “하반기엔 원만한 가격 조정을”

무기질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오는 6월까지 2분기 무기질비료 공급 가격은 1분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농가 입장에서선 추가 생산비 부담 걱정을 덜게 됐지만, 비료업체의 일부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급등했던 무기질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은 불안한 국제 정세와 유가급등으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올해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국제비료가격 정보지(FMB)’ 집계 따르면 요소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지역 가스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4월 21일 기준, 올해 1분기(697 달러)보다 24.1% 상승한 톤당 865달러(FOB, 본선인도가격)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 평균 가격 최고치였던 12월 941달러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염화칼륨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이 부족해지고, 저가 원료가 고갈되면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거래가격은 톤당 883달러(CFR, 운임포함가격)로, 1분기 655달러에 비해 34.8%가 올랐다. 인산이암모늄(DAP)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수출 제한과 주요 원료인 암모니아 및 인광석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1분기 909달러(FOB) 대비 17.2% 높아진 1065달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원료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한 비료업체 관계자는 “업계가 공동 구매를 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 취급 물량과 비교하면 소량으로, 적절한 가격에 원자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올해 6월까지의 무기질비료 농가 공급 가격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무기질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과 비료 수급 안정을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비료업체의 원자재 실구매 가격을 반영해 분기별로 계통 공급 가격을 조정하는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도입·시행키로 했으나, 농가의 생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비료 사용량이 많은 2분기까지는 무기질비료 가격을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시행키로 한 이후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내심 국제 원자재

시세를 반영한 계통공급가격 인상을 기대하던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힘이 빠질 수 있는 결과다. 그나마 인상 폭이 적었던 1분기에 상반기에 사용할 원자재 상당량을 확보해 놓은 것이 위안거리다.

한 비료업체 관계자는 “올해 2분기 가격이 오른 시점에 구매한 원자재로 하반기에 비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만약 이 시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계통구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지면 그 때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농가 비료 사용량의 2/3가 상반기에 몰려 있는 만큼 농가 부담이 덜한 하반기에는 가격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비료업체들의 원자재 구매 현황을 검토한 결과, 상반기 사용량의 80~90%를 가격이 크게 오르기 전인 1분기에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로, 농가 부담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2분기에는 가격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3분기, 4분기에도 업체의 실제 원자재 구매 가격 등을 토대로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2. 5. 10.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지난해 무기질비료 농업용 출하량 전년대비 2% 증가

- 질소질비료는 줄어 들고 완효성·원예용비료는 증가
- 국제원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세 지속
- 업계, ‘무기질비료 상시계약단가 조정시스템’ 기대

국내 무기질비료 출하량은 지난 2010년부터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2021년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료협회(회장 하형수)는 2021년 무기질비료 농업용 출하량이 1,046천톤으로 2020년 1,025천톤에 비해 2%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까지는 정부시책의 변화, 환경규제 강화 및 경지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출하량이 계속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왔다. 반면에 2021년은 기후변화,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제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고 가격도 급등하면서 농가 수요가 일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종별로 보면 요소와 일반복비, 맞춤형비료는 줄어 들고, 완효성 등 원예용비료는 늘어났다. ▲요소는 2021년 135천톤 출하되어 2020년 152천톤 대비 11.2% 감소했다. ▲맞춤형비료는 129천톤으로 전년 141천톤 대비 8.5% 줄었다. ▲완효성비료는 정부의 환경친화적 시책에 부응하고 농가 선호도 늘어나면서 68천톤 출하되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벼농사에 사용되는 일반복비는 줄어든 반면, 채소·과실류용 원예용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 지속되는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세

2020년초부터 국제원자재 수급이 불안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와 비료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까지 가격급등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요소는 4월 21일 기준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톤당 865달러로 올 1분기 697달러보다 24.1% 상승했다.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과 코로나19로 수출항 봉쇄조치, 인도 응찰에 앞선 수입국의 관망에도 상승세에 있다.

염화칼륨은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톤당 883달러로 올 1분기 655달러보다 34.8%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러-우 사태로 공급 부족 지속과 저가 공급량의 고갈 등으로 동남아 태국·베트남 공급가격은 현물(spot) 기준 925달러를 보이고 있다.



인산이암모늄은 FOB 톤당 1,065달러로 올 1분기 909달러보다 17.2% 상승했다. 중국의 수출제한 지속과 주 소비국인 인도의 국제응찰 연기, 중남미 국가의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 업계, 수입선 다변화 및 기능성비료 공급 확대 최선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입절차와 현장 여건이 어렵지만 공동구매와 수입선 다변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농정방향에 맞춰 작물별 특화된 기능성 비료와 환경친화적 비료의 공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협회 운영될 전무는 “국제원자재 수급이 불안하고 가격급등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이어서 농가에는 안정적으로 비료를 공급하고 비료업계는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도입된 무기질비료 정부 보조사업과 원료구입자금 무이자 지원이 계속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에서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해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고 비료 수급 안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기질비료 상시계약단가 조정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비료업계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완화와 비료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고, 국제원자재 가격과 연동된 적정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 2022. 4. 28.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 농식품부 장관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정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밀가루 수입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품과 외식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밀가루 등의 공급망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 매겨진 5%의 관세도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2. 5. 24. YTN사이언스 기사내용 인용

## □ 식량안보 강조 중국, 1.9조원 보조금 지원

식량 안보를 강조해온 중국이 1조9천억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며 증산 독려에 나섰다. 중국 재정부수는 22일 실제 경작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100억 위안(약 1조9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작년 7월에도 200억 위안(약 3조8천억원)의 농업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재정부는 지역 사정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정해 적시에 충분한 자금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월스톱' 지급 체계를 갖추라고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요소 가격은 t당 2천210.9 위안(약 41만9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7% 올랐고, 복합비료는 t당 2천943.3 위안(약 55만8천원)으로 55.2% 인상됐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량 증산을 독려해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12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중국인의 손에 확실하게 들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막히고, 세계 주요 생산국의 가뭄과 홍수, 폭염 등 기상 악화로 올해 글로벌 밀 수확 감소 우려가 제기되자 중국은 부쩍 식량 증산에 공들이고 있다.

※ 2022. 5. 23. 연합뉴스 기사내용 인용

### □ '식량안보' 강조 중국 비료가격 급등·생산 차질 우려

식량안보를 강조하며 증산을 독려하는 중국에서 비료 가격이 급등, 식량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요소 가격은 t당 2천210.9 위안 (약 42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7% 올랐고, 복합비료는 t당 2천943.3 위안(약 56만원)으로 55.2% 인상됐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귀샹 연구원은 중국신문망에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중국 화학비료 생산업체들의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국제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수출 물량을 늘려 자국 내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경작 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농민들도 농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비료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중앙(CC)TV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봄철 파종 면적이 3천280만ha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파종률이 높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비료 가격 급등에 부담을 느끼는 농민들이 사용을 줄이게 되면 식량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비축분 공급 등을 통해 비료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200억 위안(약 2조8천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민 부담 완화에도 나섰다.

※ 2022. 5. 9. 연합뉴스 기사내용 인용

## 4 농정 이슈

### □ 미국중국EU 등 세계 각국 증산정책 발동

- 농업관련 각종 규제완화 추진
- 재배면적 늘리고 보조금 지급
- 한국도 식량안보 법제화 여론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식량 증산 정책을 발동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식량 증산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달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의 한 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국 내 식량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모작 보험 가입이 가능한 카운티(미국 행정단위)를 1935곳으로 681곳 더 늘리는 한편, 정밀농업을 하기 위해 농민이 완료해야 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비료 생산을 위한 지원액을 당초 2억5000만달러에서 5억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EU는 보존 목적의 휴경지에서도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허용한 데 이어 휘발유에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는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는 3월에 밀·귀리·보리 등의 재배를 늘리기 위해 1100만달러 규모로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매체인 <경제일보>는 지난 달초 중국 농업농촌부가 올해 콩 재배면적을 911만3000ha로 늘려 콩 1980만t을 생산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8.5%, 20.7% 증가한 것이다. 중국 농업당국은 콩 증산을 위해 황무지 97만ha를 개간하고, 콩 재배 보조금 지원 확대, 콩과 옥수수 혼합 경작 독려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비료 매점 행위 금지, 비축분 공급 등을 통해 비료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3월 보조금 200억위안(2조8000억원)을 지원해 농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농민 부담 완화에도 나섰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중 하나인 이집트도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내년 40만4685ha, 내후년까지는 약 81만ha에 달하는 밀을 추가 경작할 계획이라고 2월말 발표했다. 이집트는 한해 밀 소비량 2100만t 가운데 61%인 약 1300만t을 수입하고 있다.

이집트는 수입량의 약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해왔던 터라 전쟁 이후 안정적인 밀 수급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식량안보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식량안보 관련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해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에서 “식량문제를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식량안보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22. 5. 25.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한국, 무역왜곡보조 감축보다 적절히 사용을”

- 대외경제정책연 보고서

- EU·미국 일부 농산물 대상, 값지지 위해 농업보조 늘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왜곡보조를 감축하는 대신 오히려 일부 농산물을 중심으로 늘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농업 생산을 국가가 유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무역왜곡보조를 무조건 감축할 게 아니라 농촌 보존 등을 위해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 따라 각국의 농업보조는 허용보조와 무역왜곡 보조로 분류되고 무역왜곡보조 가운데 국내 시장 가격을 지지하는 농업보조총액(AMS)은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무역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져 감축을 요구받게 됐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UR 농업협정 정신과 달리 무역왜곡보조를 성실히 감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8년 기준 118억유로로 1995년(719억유로)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감축 추세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AMS가 2010년 65억유로에서 2017년 69억유로로 증가했다. 보조가 늘어난 대표적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였다.

미국은 무역왜곡보조가 1999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2017년 무역왜곡보조는 163억달러로, 가장 낮았던 2010년의 101억달러보다 61%나 증가했다. 보조가 늘어난 품목은 설탕·면화·대두·옥수수였다.

주목할 점은 보조가 늘어난 품목이 대체로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 또한 상승 추세라는 점이다. 가격이 어느 수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가격 지지를 위한 무역왜곡보조가 지급된 것이다.

보고서는 주요 이유가 농촌 지역사회 유지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넓은 토지가 필요한 이들 품목이 적절히 생산되지 않을 경우 농촌 거주 여건이 악화하고 지역사회가 원활히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농촌정책의 일환으로 농업보조를 지급해 적정 생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무역왜곡보조를 무조건 감축할 것으로 여기는 국제사회의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무역왜곡보조를 철저히 통제하는 국내 농업보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AMS 사용액은 지급 상한인 1조49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29억원에 불과하고, 품목별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사용액도 해당 품목 생산액의 1%에도 못 미친다”면서 “무역왜곡보조를 무조건 많이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등 농업 생산이 갖는 비교역적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2. 5. 4.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202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 2021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4,776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  
평균가계지출은 3,550만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

\*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업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2021년말 기준 농가의 평균자산은 5억 8,568만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  
평균부채는 3,659만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

### 〈농업소득〉

- 2021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296만원으로 9.7% 증가
  - ▷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가 0.1% 증가하였으나, 농업총수입이 3.2% 늘어나 전년대비 9.7% 증가
- 농업총수입은 3,719만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
  - ▷ 농작물수입은 채소, 미곡, 과수 등에서 수입이 늘어 전년대비 6.0% 증가
  - ▷ 축산수입은 축산물, 소동물 등에서 수입이 늘어 전년대비 3.6% 증가
- 농업경영비는 2,423만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



# 식량과 비료 -2022년 5월호-

- ▷ 재료비(종묘비, 사료비 등)와 노무비는 전년대비 각각 1.7%, 8.8% 증가
- ▷ 비료비는 2.4% 감소

## <농가의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

(단위: 천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21/‘20)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농업소득	10,047	12,920	10,261	11,820	-	12,961	-	9.7
농업총수입	30,580	35,757	34,436	36,033	100.0	37,190	100.0	3.2
- 농작물수입	21,069	24,708	23,299	24,534	68.1	25,997	69.9	6.0
- 축산수입	8,029	10,027	10,478	10,434	29.0	10,806	29.1	3.6
- 농업잡수입	1,482	1,022	659	1,064	3.0	387	1.0	-63.6
농업경영비	20,533	22,837	24,175	24,212	-	24,229	-	0.1
농업소득률*	32.9	36.1	29.8		32.8		34.9	-

\*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 2022. 4. 28. 통계청 보도자료

## □ 2022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 '22년 마늘 재배면적은 22,362ha로 전년 21,999ha보다 1.7% 증가
  - ▷ ('21) 21,999ha → ('22) 22,362ha
    - 전년 마늘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금년 마늘 재배면적 증가
- '22년 양파 재배면적은 17,655ha로 전년 18,461ha보다 4.4% 감소
  - ▷ ('21) 18,461ha → ('22) 17,655ha
    - 전년 정식기까지 이어진 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금년 양파 재배면적 감소

※ 2022. 4. 28. 통계청 보도자료

## □ 원자재가 급등에 하도급대금 분쟁 ↑

- 계약대 원가변동 조항 확인을
-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성립율 69%...조정금액 매년 증가추세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청과 하도급업체 간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원자재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사건은 지난 한해 33건이 접수돼 2020년(14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 1분기엔 7건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 접수건수(2건) 대비 250%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정보 동향 등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의 연평균 증가율(2020년 3월~2022년 3월)은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 75.7% 등이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식량과 비료 -2022년 5월호-

주요 접수 사례는 원청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다.

2019년부터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 성립건수는 33건으로 성립율은 68.8%였다. 2021년은 조정요건이 충족된 21건 중 18건이 성립(85.7%)됐다.

조정원은 하도급업체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원청과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뒤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해 분쟁발생시 납품단가 원가 정보를 제시할 것을 안내했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원청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원한다면 공정위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익명제보를 원한다면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2022. 4. 28 뉴스1 기사내용 인용

##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 □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농업용 출하량)

(단위 : 톤)

구 분	'19년	'20년	'21년	'21년 3월말	'22년 3월말
단 비	185,086	188,275	175,124	76,593	99,292
- 요 소	155,090	152,476	135,483	60,612	82,910
- 용성인비 등 기타	29,996	35,799	39,641	15,981	16,381
복합 비료	853,473	837,024	870,459	259,654	281,390
- 일반복비	198,168	174,998	165,522	51,166	60,855
- 맞춤형비료	151,771	141,137	129,214	60,278	56,543
- 완 효 성	58,247	66,244	67,747	18,474	29,765
- 원에 기타	445,287	454,645	507,975	129,737	134,227
누 계	1,038,559	1,025,299	1,045,583	336,246	380,682

※ 협회 회원사 출하량 기준(누계)

###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 및 환율

(단위 : \$/톤,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1년 4월말	'22년 4월말
요 소	313	289	445	382	942
D A P	380	326	552	584	983
염화칼륨	350	296	317	261	675
환 율 (매매기준율)	1,165.65	1,080.27	1,143.96	1,119.40	1,232.34

※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인용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6 무기질비료 우수성 홍보

### □ 식량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24%가 안되는 상황이다. 쌀을 제외하면 10%에도 못 미치고, 밀·옥수수의 자급률은 1~2%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 밀 500만t, 옥수수 1000만t 등 곡물 1600만t을 수입했다.

쌀이 조금 남아돈다고 해서 식량 걱정은 기우라고 보는 정부·국민·언론의 시각은 위험하다. 위기의 본질은 ‘앞으로도 식량이 떨어지면 외국에서 싸게 수입해 먹지’란 느슨함이다.

식량문제가 조마조마하게 느껴지는 것은 네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사막화, 미국의 바이오 연료정책 등 전 세계적인 식량부족을 초래할 요인이 현재진행형이다.

둘째, 우리 식탁에 값싼 식재료를 공급해온 중국이 식량 수입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일부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의 ‘블랙홀’이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러시아도 자국 식량의 수출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있다.

셋째, 외국에서 식량을 값싸게 사올 수 있는 시대는 저물었다. 2007~2008년에 경험한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예고탄일 뿐이다.

넷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도 식량 사정을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다.

유비무환이다. 식량위기란 ‘재앙’을 피하기 위해 국민·정부·기업이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국민은 식량을 아끼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등 생활 속의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음식물쓰레기를 10% 줄이면 식량자급률이 0.3% 오른다.

정부는 유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모작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의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통방어에 나서야 한다.

※ 자료 : 농민신문(19. 05. 15.), 박태균(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

## 7 이달의 주요 인사

###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5월10일자)

- 2022.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019.9~2022.4        국가농림기상센터 이사장
- 2016.8~2017.7        농촌진흥청 청장
- 2013.3~2016.8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 2012.4~2013.3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2011.6~2012.4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
- 2010.2~2011.6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2006.3~2007.7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
- 2004.3~2006.3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1984.12 제20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5월9일자)

- 2022.5~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2021.12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2021.4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실장
- 2021.1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2019.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국장
- 2017.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2016.12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 1994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 농촌진흥청 인사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5월13일자)

- 2022.5~제31대 농촌진흥청 청장
- 2020.12제11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 2019.12~2020.12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2019.4~2019.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국장
- 2017.9~2019.4 제52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 2015.4~2017.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국장
- 1990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 8 회원사 제품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슈퍼솔 참외용
- 성분량 : 4-15-40+TE(미생물 함유)
- 특성 및 효과
  - 참외의 착과 및 과실비대에 알맞은 양분구성으로 제조
  - 미생물(Bacillus velezensis)이 함유되어 있어 양분 흡수 증대, 토양 개량, 염류집적 경감의 효과
  - 고품질 원료를 사용하여 물에 잘 녹으며 작물 흡수가 빠름
  - 미량성분이 킬레이트화 되어 토양고정, 용탈 없이 작물 흡수가 뛰어남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식량과 비료

-2022년 5월호-

## □ (주)조비



- 제품명 : 단번에30
- 성분량 : 30-8-7 (NPK 코팅 완효성)
- 특성 및 효과
  - 밑거름 한번으로 비효가 3~4개월 지속되며, 질소, 인산, 칼리 전 성분 코팅으로 비효가 안정적
  - 입자가 균일하고 단단하여 측조시비 등 기계살포에 적합한 비료
  - 수확량과 품질 향상,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비료
  - 비료 흡수 효율을 높게하여 양분 유실 및 토양 수질 오염을 줄여 줌

##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는 일이 적어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질소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효과가 큼

## □ (주)팜한농



- 제품명 : 롱스타K
- 성분량 : 19-10-10+1+0.1
- 특성 및 효과
  - 밑거름(기비) 한번으로 수확기까지 비효가 지속되는 질소와 칼리를 코팅한 완효성 비료
  - 입자가 균일하여 기계살포 및 측조시비에 적합
  - 롱스타K는 중·만생종 품종에 최적화된 양분 용출로 중·만생종 품종의 생육기간 동안 양분을 공급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식량과 비료

-2022년 5월호-

## □ (주)풍농



- 제품명 : 명품유비료
- 성분량 : 18-9-8, 고토1, 붕소0.1, 유기물10, 완효성, 기능성NBPT함유
  - 기능성비료, 발명특허등록, 녹색기후상 수상 제품
- 특성 및 효과
  - (주)풍농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공동 개발한 기능성비료
  - 속효성, 지효성, 완효성양분의 균형적, 안정적 공급으로 사용량 및 시비노력비 절감형 친환경비료
  - 균일하고, 단단한입자로 기계시비 및 측조시비완성
  - 기능성 비효증진제(NBPT) 함유로 양분흡수이용율 개선, 벼 및 원예작물 생육향상, 수량증대효과 탁월

##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땅심측조짱
- 성분량 : 28-7-9+1+0.1(규산,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함유, 고농도 측조시비 전용비료
  - 초기생육에 효과적이며, 증수효과 우수
  - 비효가 오래 지속되며 미질향상

## □ (주)세기



- 제품명 : 원샷NK
- 성분량 : 25-0-10+1+0.1(웃거름)
- 특성 및 효과
  - 생육중기 이후 필요한 성분을 속효성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작물의 후기생육에 효과적인 웃거름 전용비료
  - 벼의 내병성을 증대시키고, 등숙율을 높여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음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식량과 비료

-2022년 5월호-

## □ KG케미칼(주)



- 제품명 : 측조로한번만
- 성분량 : 22-7-9+1 + 0.2
- 특성 및 효과
  - 시그모이드 타입 완효성 비료
  - 비료 성분이 적기 용출되어 작물의 흡수이용을 높이고, 수확량 증대
  - 입자가 균일하고 강도 높아 측조시비에 적합

※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식량과 비료

-2022년 5월호-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